

계묘년 새해, 미술관에서 긍정 에너지 받아보세요



이의선 작
'COMMAND'



이의선 작



이의선 작
'HOLD ON'

긍정에너지를 담은 화가 레드기저 (RED GEEZER · 이의선) 작가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예약의 도시 시민에게 좋은 기운을 선사한다.

드영미술관은 오는 29일까지 제2전시실에서 이의선 작가의 두번째 개인전 'ADDICTION'을 개최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 17점을 포함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레드기저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기본감정 중 행복, 즐거움 등 긍정적인 감정을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시각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실현을

드영미술관, 레드기저 두번째 개인전 29일까지 'ADDICTION' 선배 창작의 즐거움으로 긍정적 삶 추구

한다.

이번 전시명 'ADDICTION'은 '중독'이라는 뜻을 지닌다. 작가 본인이 원하는 행복에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한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갈망하는 점이 중독과도 같기 때문이다.

레드기저에게 있어 '그림'은 '긍정에너지'를 담은 즐거운 놀이이다. 작가의 에너

지를 세상에 남기는 방법이자,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작가는 "창작의 고통은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으로 느껴진다. 고통이라는 의미는 통증의 심화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에 대한 수고를 의미하는 듯하다"면서 "그림을 그리는 자체가 즐겁고 또한 대중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다. 저에게 있어 창작은 즐거움"이라고 설명했다.

레드기저는 일러스트레이션 방식을 바탕으로, 모호성과 구체성의 중간지점에서

이야기한다. 그의 작품은 만화영화 캐릭터를 비롯해 포켓 몬스터, 비행기, 그림도구 등을 주요 소재로 한다. 이는 작가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소재들이다. 레드기저 작가는 스스로를 고무시키거나, 느꼈던 감정,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작품 소재로 삼는다. 이러한 소재를 통해 완성된 작품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알리는 동시에 작가가 추구하는 단순하고 즐거움 삶을 담아낸다.

레드기저는 "그림은 긍정에너지를 담아내는 즐거운 놀이"라면서 "작품활동을 할 때 에너지를 쏟아보기도 하고, 완성된 그림

을 보며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김도영 드영미술관 관장은 "레드기저의 긍정에너지가 가득한 이번 전시를 통해 꿀을 수 없는 중독처럼 본능에 이끌리는 자신의 진짜 즐거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개했다.

한편, 광주 출신인 레드기저는 상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재)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엔날레본부 전시기획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정희윤 기자

지역 청년예술인들, 태국서 문화교류 위상 '공고'

광주 문화개발원 조 치앙마이서 '활짝'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첫 선을 보인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공부방 미술관 프로젝트 '뮤지움@태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협력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광주광역시 최초

문화 ODA(공적개발원조) 성격의 국제교류 사업이다. 특히 아시아 청년들이 문화예술로 소통과 연대를 도모하는 청춘사업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진행된 '뮤지움@태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부방 미술관 프로젝트로, 국내 예술가들이 이동형 컨테이너를 그려피티와 다양한 작업을 통해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이는 아이들의 공부방이나 어른들의 사

랑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개념의 공간이다. 컨테이너 4개를 '플라워 페스티벌' 현장 인근에 설치해 이상웅·박기태·서영실·이재문·김미지·이현승·최혁 등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해당 공간을 치앙마이에 기부, 현지 작가들의 전시장 또는 문화공간, 공부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예술은 힘되고 지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예술을 매개로 아시아 청년예술가들이 새로운 가치와 비전, 내일을 그려나갔



'뮤지움@태국'

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예술도시 광주의 예술자선이 지역을 넘어 아시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강형구 작가의
野說天下
〈아설천하〉

〈제8화〉 인간의 마음
(26) 신분제도(身分制度)

격도야(人格陶冶)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功)가 아니고 과거시험을 보아 입신출세(立身出世)를 향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功)를 하였던바 그것이 좌절됨을 안 사내아이의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총명함으로 다른 문벌 좋은 서당 아이들보다도 뛰어난게 공부를 잘하였건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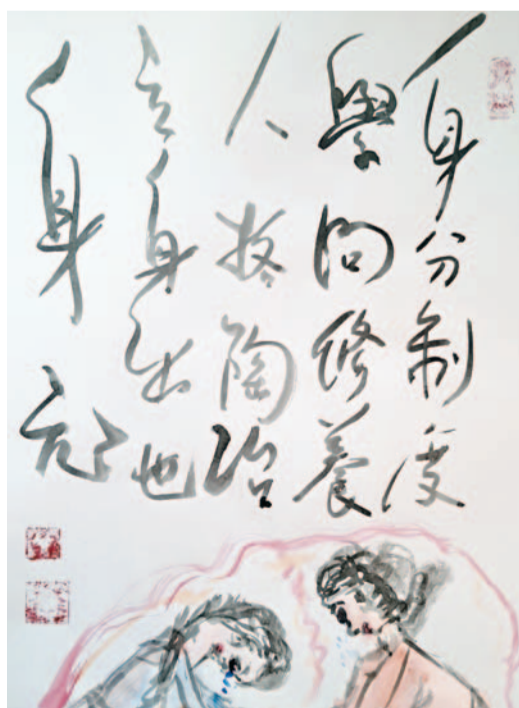
그날 극한 좌절감에 휩싸여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내아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다.

"도대체 저는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기에 이리 근거도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이 집안의 주위온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내아이의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흠칫 놀란 눈빛으로 말했다.

"내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 너도 익히 잘 알고 있잖아! 혼인 첫날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빨래터에 누군가 내다 버린 너를 네 아버지가 주워서 길렀다고 하지 않았나!"

"사실은 제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제 신원(身元)이 불분명하여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 신원에 대하여 밝혀주시



그림/진소방(중국 사천대학 졸업)

옵기 바랍니다!"

사내아이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사실은 어느 모로 살피거나 자신의 용모를 따져보면 분명 저 어

머니를 똑같이 닮았음에도 무엇 때문으로 주위 온 아이라고 한사코 우기는 것일까? 과거시험이 아니라도 그 궁금증을 반드시 풀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래! 나라 시책(施策)이 그러하다는데 힘없는 백성이 그것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너를 주위다가 길러주고 가르쳐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는 사내아이를 타이르며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제가 어떤 연유로 태어난 아이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사내아이가 두 눈에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苦痛)이 한뼘 밀려오는 것이었다. 제속으로 난 자식이었지만 누가 혹여 불세라 내놓고 그 사랑을 한 번도 표현해 보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었다. 더구나 혼인 첫날밤에 낳은 자식을 일체 비밀로 하고 그것을 모두 가슴에 안고 살아온 고마운 남편을 생각하면 절대로 속 보이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어머니로서 이 사내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부러 항상 거리감을 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었다.

〈계속〉